

“오늘은 내가 주인공” 예술 꿈나무들 끼 발산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choi@kwangju.co.kr



잔디밭에서 동기동~ 경연을 앞두고 초록으로 물든 잔디밭에서 연습에 한창인 국악합주팀.



정열의 발레리나 정열적인 발레리나의 모습을 선보인 이누리(동아여고 1)양의 '피키타 아다지오'



색소폰은 내가 최고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준 이태호(하남초 4)군.



진지한 플루트 연주 김동연(여수북초 6)양이 아름다운 음색의 플루트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매서운 눈빛, 강렬한 몸짓 카리스마있는 표정과 동작으로 무대를 장악한 전남예술고등학교 군무팀.



양증맞은 춤사위 꼬마 발레리나들의 모습이 양증맞다. 광주송원초 군무팀의 '양치기 소녀들'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숲속의 비타민
음이운의 보고
구례...

광주일보 since 1952
구례군 의회